

보도일시	2025.5.30.(금)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단장 : 안규백)
담당자	박영화 팀장(010-4652-0520) / 김윤진 팀장(010-5672-8877) / 나호선 팀원(010-9073-1328)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약사의 미래와 공공보건의료의 방향’ 정책간담회 개최

- 총괄특보단·약준모, 약사 역할 확대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안규백 단장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공백 메우고 약사 전문성을 공공성과 연결 짓는 정책 절실”
- 약준모 “약사·한약사 직능 구분 명확화 및 제도 정비 필요” 강조
- ‘의료취약지 건강관리 허브, 지역공공약국 설립’ 제안도

□ 대한민국 보건의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5월 30일(금) 오후 8시 민주당사 9층 백송홀에서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단장 안규백)과 젊은 약사들의 모임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회장 박현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약사 직능의 잠재력을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 안규백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장은 환영사에서 약사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치유의 전초기지이자 보건의 거점’임을 강조하며,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고 약사의 전문성을 공공성과 연결 짓는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약준모 박현진 회장은 ▲약사·한약사 직능 구분 명확화 및 제도 정비 ▲지역공공약국 설립 및 지원 확대 등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 박 회장은 “현재 한약사 제도가 한약 중심의 직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약품 취급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약사는 현대의약품 기반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한약사는 한약제제 및 한방 약료 전문 인력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한방의약분업 추진을 통해 환자의 약물 안전성과 의료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한방의약분업 로드맵 마련 ▲직능 표시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 이어 박 회장은 “의료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통해 약사 기반의 공공약국을 설립하고, 0차 진료소로서 상시 개방형 보건의료 점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역공공약국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기반의 밀착형 건강상담 및 복약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약사 직능의 공적 가치와 미래 보건정책에서의 역할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정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 별첨 : 행사사진

※ 별첨 : 행사사진

